

재혼가정 청소년의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가족관계 인식과 교육요구도를 중심으로

The Perception of Stepfamily Adolescents about Their Stepfamily relationship and the Need for Education Program

임춘희*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Lim, Choon- Hee
Seongbuk-gu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stepfamily adolescents' emotions related with parental remarriage and the need for education program for them. Forty three stepfamily adolesc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were surveyed. As a main result, the most of stepfamily adolescents felt a difficulty in adjustment to stepparent even through more than half of the adolescents perceived the advantage of parental remarriage. The greatest number of stepfamily adolescents wanted an understanding of themselves from parents and agreed the necessity of the educational program for them. 'The understanding of stepfamily', 'The resolution of conflict with stepparent' and 'Stress management' were the popular topics which were demanded as program contents by stepfamily adolescents. Several discussions and conclusions on the main result were suggested.

Key Words : perception, stepfamily adolescents, stepfamily relationship, the need for the education program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가족문제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산업화이후 진행된 특징적인 가족변화의 하나는 이혼과 재혼의 증가라 할 수 있다. 혼인과 이혼에 관련된 통계(통계청, 2006)로 살펴볼 때, 1970년부터 증가 추세를 이어가던 우리 사회의 이혼율은 2003년 조이혼율이 3.5로 정점을 이루다가 약간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유배우자 천 명당 이혼건수로 보는 유배우 이혼율은 2005년도 5.3건으로 2005년 한 해 동안 전체부부 100 쌍 당 1.06쌍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혼인형태별 구성비를 보면 남녀가 초혼인 경우는 계속 감소추세로 2005년도 현재 73.9%이며 남녀가 재혼인 경우는 계속 증가추세로 2005년도에는 14.7%를 차지한다. 특히 여성이 재혼인 경우의 혼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의 성격을

볼 때, 남녀 모두 이혼 후 재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2004년도 협의이혼은 86.5%로 재판이혼인 12.8%로 협의이혼이 주류를 이루며 이혼당시 미성년자녀의 유무를 볼 때 2004년 이혼당시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는 63.3%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볼 때 한국가족의 두드러지는 특징적인 변화는 가족안정성의 약화와 이혼의 증가 그리고 재혼과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으로 요약된다(장혜경 외, 2002) 특히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재혼과 재혼남성이나 재혼여성인 데리고 오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계부모가족인 재혼가족의 증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재혼가족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해 재혼가족을 지지하거나 재혼가족이 갖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지지나 교육적 개입, 학문적 접근은 충분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초혼의 핵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간주하려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혈연중심의 가족문화는 아직도 재혼가

* Corresponding author: Lim, Choon-Hee
Tel: 02) 3290-1660, Fax: 02) 3290-2520
E-mail: chlimnew@yahoo.co.kr

족을 문제가족이나 열등한 가족으로 보는 사회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재혼가족은 초혼가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체의 고유한 특징과 발달과업을 가지며 재혼가족원의 관점에서 독특한 재혼가족 주기를 경험한다(Papernow, 1993).

건강가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재혼가족 또한 다른 모든 형태의 가족처럼 잠재적인 성장가능성 즉 건강성을 갖고 있는 가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혼가족은 초혼가족과는 달리 사별이나 이혼 같은 상실감을 주는 경험을 바탕으로 출발한 가족으로 전혼자녀의 존재와 새부모와 새자녀와의 관계가 재혼가족의 안정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 미성년의 전혼자녀들은 부모의 재혼 결정과정에서는 발언권이 없지만 사실상 부모 재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아에 눈뜨게 되는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 정서적으로 급성장하는 시기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기존의 가치관에 도전하면서 정체감형성과 독립성의 욕구가 커진다. 이러한 청소년시기의 정신건강은 성숙하고 건전한 개인이자 사회성원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의 가정은 또래관계나 학교생활과 더불어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감을 탐색하고 독립성 추구의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여전히 안정되고 사랑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배후기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 자녀들의 독립성 욕구와 부모의 통제강화가 충돌하면서 부모 자녀관계가 가장 힘들어지는 시기도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청소년기는 사실상 대학입시 준비기간으로서의 의미만 강조되기 때문에 특히나 공부를 둘러싼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일상적이며 지극히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재혼가정 청소년의 입장을 생각해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청소년기 특유의 발달적 욕구와 입시공부에 대한 중압감을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가정 내적으로는 새로운 부모나 형제들에게 적응해야 하고 가정외적으로는 재혼가족에 대한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가지리라 예상되는 재혼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인 조사연구나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재혼의 이혼율이 초혼의 이혼율보다 다소 높으며 (Clarke & Wilson, 1994) 특히 청소년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경우 새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족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기 쉽다고 예상할 때 재혼가족 청소년의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에 앞

서 우선적으로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족관계에 대해 갖는 인식과 정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적 개입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재혼가정의 청소년

재혼가족에서 청소년기를 보낸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정신분석적인 임상적 설명에 의하면 (Sager et al., 1983),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당면하여 해결할 발달적 과업은 청소년 전기 이전의 발생학적 위기들을 극복한 후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며 아동의 역할을 끝내고 성인의 역할을 시작하며 부모의 성격과 정체감의 측면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감정의 표현을 숙달하고 자기통제력을 발달시키며 성인과 타협하는 것을 배우며 부모에 대한 오이디프스적인 감정을 재조정하고 또래와의 심리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재혼가족의 청소년은 이혼과 같은 가정해체로 청소년 전기의 과업수행이 어려우며 청소년기의 시작과 함께 아동으로서의 역할 상실과 원래의 친부모 가정의 상실이라는 이중의 종결과정을 거치면서 부모와의 동일시과정의 혼란으로 정체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부모에 대한 분노심이나 충성심 갈등과 같은 복잡한 감정의 경험과 청소년기의 성적 충동이 부모의 재혼으로 극단적으로 많아지거나 또는 반동형성을 나타내는 등 극단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긴 해도 임상적인 측면에서 재혼가족의 청소년은 초혼 핵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혼 핵가족과 재혼가족의 가족체계가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Sager 등(1983)의 설명은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재혼가족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계는 새부모와 자녀관계로 특히 청소년기 자녀와 새부모와의 관계는 갈등의 소지가 많은 관계로(Quick, 1994), 재혼가족에서 청소년 자녀의 존재는 재혼가족의 문제를 증가시키며 안정성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로도 간주된다 (Bray, 1999). 또한 가족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재혼 부부들의 경우 재혼 후 1년 된 재혼부부의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재혼부부의 요청이 가장 많다는 결과(Wald, 1981)도 있다. 새엄마들의 입장에서 전처자녀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녀들이 아동기에

<표 1> 초혼 및 재혼가족체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초혼 핵가족	재혼가족
정체감과 소속감	자녀들은 가족에서 태어난 성장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양친의 태도를 내사한다. 정체감의 감각은 핵가족이 되고 소속되는 것에서 생기며 가족원의 기대를 잘 안다.	핵가족과 같이 기능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두 가족체계의 일부이다. 익숙했던 어린 시절의 생활방식과 핵가족의 상실, 그리고 부재부모에 대한 슬픔이 있다. 아이들은 핵가족의 와해와 새부모를 택하는 문제에서 아무런 발언권이 없다. 이것은 종종 자녀들에게 무기력과 분노, 죄책감, 반항심, 분열된 충성심, 불안정성, 정체감 혼란, 그리고 재혼가족에 대한 몰입부족을 초래한다.
생활의 근간	뿌리가 안정되어 있다(핵가족, 이웃, 학교, 친구 등).	뿌리가 끊기거나 대체되기 쉽다. 아노미 상태가 증가한다.
형제 순위	형제순위가 고정되어 있다.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형제가 혈연이며 신체적 외모가 비슷하다. 근친상간이 금기시된다.	새형제가 들어오면서 형제순위가 바뀐다. 친부모의 애정과 시간을 새부모와 공유한다. 만일 새로 출생하는 자녀가 있으면 새형제와 반쪽만 피가 같은 새형제를 갖게 된다. 새형제에 대한 역할이 불분명하다. 재혼가족 성원간에 다중적인 동맹관계가 가능하다. 외모상의 차이가 뚜렷하다. 침입과 고립의 감정이 증가한다.
양친의 존재와 오이디푸스 갈등	양친의 존재는 오이디푸스적인 환상과 욕구충족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재혼 전 한부모가정이었던 부모는 자녀에게 배우자 같은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오이디푸스적인 환상을 충족시킨다. 이러한 상황으로 부모자녀간의 상호존성이 강화되며 그 결과, 기능적인 재혼가족체계의 통합이 저해될 수 있다.
자녀들의 반항	자녀들은 때로 가족체계에 반항한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을 유지한다. 연령에 적합한 반항은 스트레스를 주지만 발달적 욕구의 표현으로 수용된다.	재혼가족이 새로운 가족체계로 만일 충분한 통합이 없다면 청소년기 자녀는 가정 밖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많다. 두 가족체계가 서로 자신의 가족에 자녀를 끌어들이려고 하나 자녀는 어느 가구에도 속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한편 재혼가족은 청소년 자녀가 두 가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자녀의 역할과 기능 및 가족의 불안	자녀가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자녀의 역할과 기능은 실험적으로 학습되고 조형되고 숙달된다. 가족체계는 발달과업상의 변화로 체계의 안정상태가 다소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된다.	재혼가족은 성인들의 인생의 중반에서 시작되므로 체계는 혼란되고 자녀의 역할과 기능이 아직 내면화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역할변화의 기회가 주어지나 불확실성으로 모든 가족원의 불안수준이 증가한다.
충성심 갈등	한 명이나 두 명의 부모에 대한 충성심이 요구되거나 시험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잠재적인 충성심 갈등과 죄책감은 최소화되고 보통 정상적인 한계에 머문다.	한 명 또는 두 명의 친부모는 특히 별거와 이혼직후 초기단계에서 암암리에 자녀에게 자신만을 위한 충성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혼시에 더 악화된다. 친부모의 영향 때문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모의 어느 한 편을 편들게 된다. 이러한 분열된 충성심의 결과 새 가족관계에 대한 적개심과 재혼친부모에 대한 반항, 그리고 재혼가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다. 새부모와 관계가 좋을 때 자녀들은 불안과 죄책감을 느낀다.
친부모에 대한 분노	자녀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친부모에 대한 분노를 숨긴다.	핵가족의 경우와 같으나 원래의 가정을 깨트리고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이 드는 부모에게 자녀는 특별히 더 분노를 느낀다.

출처: Sager at al.,1983 p. 30의 내용요약

서 사춘기로 가는 발달적 전환기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춘희, 1997).

청소년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재혼가족에서 청소년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특히 어려울 수 있는데 가족의 결속을 요하는 재혼가족의 과업과 자아정체감과 심리적 독립성을 추구하는 청소년의 발달적 과업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재혼과 같은 가족변화에 아이들은 흔히 분노와 우울증

으로 반응하며 재혼가족에서 새부모와 생활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감정 즉, 상실감 충성심 갈등, 통제력부족(Loss, Loyalty, Lack of control: 3L)을 느끼는데 어린 아동은 주로 상실감때문에 그리고 9세에서 13세까지의 아동은 충성심갈등으로 그 후의 청소년은 자신의 통제력 부족의 감정 때문에 분노하며 우울해한다(Visher & Visher,1996).

흔히 아이들은 재혼가족에 쉽게 적응한다거나 아이들

이러서 쉽게 상실을 극복하리라고 가정하기 쉬우나 이는 잘못된 믿음이며 재혼가정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불안의 감정을 비롯하여 분노, 애정, 공포,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슬픔, 죄책감 등 부정적인 정서들을 갖는다(Juroe & Juroe, 1983).

1990년대 미국의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Coleman et al, 2000) 여러 연구에서 재혼가족의 청소년들은 초혼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갈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새부모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데 보다 저항적으로 되며 재혼가족 청소년들은 친부모가 새부모보다 자신들을 더 인정해주고 수용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한 대상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이 다른 대상에 대한 그것과 양립될 수 없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충성심 갈등은 재혼가족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Lutz, 1983). 그러나 대부분의 재혼가족 청소년들은 동거 양육부모의 재혼자체에 대하여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가족생활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나아가 문제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부모의 이혼과 이후의 편부모가족 생활, 동거 그리고 재혼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복잡한 가족관계를 거치면서 그 누적적인 영향이 청소년의 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Anderson et al., 1999).

청소년자녀가 있는 일반가정에서도 흔히 청소년 자녀를 가정 밖으로 내모는 일(extrusion)이 자주 일어나지만 재혼가족의 경우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크다(Sager et al., 1983). 그것은 재혼가족 체계상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특히 부모가 갈등해결능력이 없거나 재혼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클 때 또 재혼의 어려움을 청소년자녀에게 투사시켜 속죄양화하거나 청소년이 충성심갈등으로 무기력이나 좌절감이나 압도당하는 감정에 빠져 있는 경우 '내몰린 청소년 증후군(extruded adolescent syndrome)'으로 나타난다. 이는 재혼가족 내 부모와 청소년자녀간의 미묘한 분리에서 시작되어 결국 청소년의 가출이나 자살로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포기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Sager et al., 1983). 한편 재혼가족 자녀들이 갖는 부정적인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로는 스트레스의 증가와 부모양육행동의 감소, 가족역할상의 문제 그리고 가족갈등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반면에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되는 과거의 경험이나 개인적 성숙, 효과적인 부모양육행동과 부모의 지지 등을 통하여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회복할 수도 있다(Bray, 1999).

요컨대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그리고 이후 부모의 재

혼을 경험한 재혼가족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재혼이나 재혼가족생활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인식이나 정서는 청소년의 개인내적, 가족적, 사회적 적응에서 나아가 재혼가족의 안정성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재혼가족 청소년이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재혼가족 교육프로그램

국내에서 최근 가족생활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혼이나 재혼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이후 활발하게 개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혼적응교육프로그램(김득성, 2002; 문현숙 외 2002; 성정현, 2002)이거나 이혼부모와 자녀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정문자 외, 2005), 혹은 이혼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송영혜 외, 2002; 김민경 외, 2003; 홍종관, 2003)이 있으며 재혼교육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준비교육프로그램(정현숙 외, 1999; 박은주 2004)이 있을 뿐이다. 앞으로도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후 재혼가족이 증가가 예상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재혼가족생활을 하는 가족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며, 성인인 부모 뿐 아니라 부모재혼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아동이나 청소년자녀들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인구통계학적 결과와 선행연구의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재혼가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부모의 재혼과 재혼가족생활에 대한 인식과 정서를 파악하며 이들의 적응을 돕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재혼가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차적으로는 재혼가족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나 재혼가족생활교육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청소년 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안정과 적응에 제한적이거나 기여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해 먼저 연구자가 아는 서울시 동·북부에 있는 중,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연락하여 구두로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협조해주겠다는 경우에 한하여 설문지 조사를 부탁하였다. 그 결과 7개교의 중학교와 6개교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43명의 재혼가족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조사는 학급담임을 맡은 교사가 자신의 학급에서 재혼가족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된 학생을 따로 면담하여 설문지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설문조사를 수락한 학생들에 한하여 담임이 보지 않는 데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작성이 끝나면 학생이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담임교사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개인적·가족적 배경과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재혼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요구도와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폐쇄형 질문 19 문항과 개방형 질문 11 문항의 총 30 문항으로,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요구도와 관련하여서는 폐쇄형 질문 16 문항과 개방형 질문 4 문항의 총 20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인 재혼가족 청소년의 개인 및 가족적 배경과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과 정서, 재혼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재혼가족 청소년의 개인적·가족적 배경

조사된 재혼가족 청소년의 기본적인 개인적·가족적 배경은 <표 2>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사대상인 재혼가족 청소년의 나이는 만 13세에서 18세까지로 중학교 1 학년에서 고등학교 3 학년까지 총 43명이며 평균 16세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5.9%로 다소 많으며 재혼가족의 형태는 새엄마가족이 58.1%로 여전히 새엄마가족이 재혼가족의 대부분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새아버지 가정도 32.6%로 예상보다 많았다. 이는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친부모의 과거 결혼은 이혼으로 끝난 경우가 76.7%로 역시 이혼으로 인한 재혼가족이

압도적인 인구통계상의 경향과 일치한다.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당시 청소년의 나이는 그 범위가 2세에서 17세까지로 평균 9.6세이며 현재 새부모와 재혼가족으로 함께 생활한 기간은 2년 이상이 48.8%로 가장 많았다. 현재 함께 사는 친부모의 나이는 (응답수=41명) 그 범위가 33세에서 51세까지로 평균 43.4세이며 함께 사는 새부모의 나이는 (응답수=36명) 그 범위가 30세에서 52세까지로 평균 41세이었다. 동거친부모와 새부모의 직업은 자영업, 공무원, 은행원, 기사, 직장인, 사업가, 상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조사된 청소년들의 65.2%가 재혼가족에서 함께 생활하는 친형제가 있었으며 그 가운데 1명의 친형제가 있는 경우가 60.7%로 가장 많았다. 함께 생활하는 새형제는 없는 경우가 60.3%로 있는 경우 보다 많았는데 이는 조사된 청소년의 경우 새부모가 데리고 온 자녀가 없는 단순형 재혼가족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새형제가 있다고 답한 37.2%의 청소년의 경우 새부모도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생활하는 복합형 재혼가족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부모가 재혼가족에서 새로 낳은 자녀가 있는지를 물어본 경우, 없다고 76.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조사대상인 청소년의 재혼한 부모들은 대부분 새로운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된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보통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이혼한 친부모와는 가끔 연락한다가 36.3%로 가장 많았으며 자주 연락하고 만난다는 18.1%를 포함하면 같이 살지 않는 친부모와는 연락하며 지내는 경우가 전혀 연락없이 지내는 경우(30.3%)보다는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혼해서 따로 사는 친부모의 경우 혼자 살거나 재혼한 경우가 같은 비율로 (33.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인 청소년들이 현재 같이 사는 친부모가 재혼하기 전부터 함께 살았는지 여부를 보면 친부모 재혼 전부터 같이 산 경우와(44.1%) 따로 떨어져 살다가 부모의 재혼으로 함께 살기 시작한 경우(44.1%)가 같은 비율로 조사 대상의 절반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부모의 재혼을 전후로 주거이동을 비롯한 생활변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같이 생활하는 새부모에 대한 사전 인지에 대해서는 새부모가 이전에 만난 적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경우가 5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와 새부모의 부부사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좋은 편이다가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를 포함하면 69.7%로 재혼부모의 부부사이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표 2> 재혼가정 청소년의 개인적·가족적 배경

		명(수)	%(소수 셋째반올림)
연령(만) (학년)	13(중1)	2	4.65
	14(중2)	4	9.30
	15(중3)	10	23.25
	16(고1)	9	20.93
	17(고2)	9	20.93
	18(고3)	8	18.60
	19(고3)	1	2.32
성별	남학생	24	55.81
	여학생	19	44.19
재혼가족형태	재혼한 아버지와 새어머니	25	58.14
	재혼한 엄마와 새아버지	14	32.56
	기타(언니/누나/이모/엄마)	4	9.30
재혼 전 상황	부모의 이혼	33	76.74
	부모의 사별	10	23.26
새부모와 동거기간	6개월 미만	2	4.65
	1년 이상 2년 미만	17	39.53
	2년 이상	21	48.84
	같이 살지 않음	1	2.33
	무응답	2	4.65
동거하는 친형제의 수	없다	14	32.56
	있다	28	65.12
	무응답	1	2.33
새 형제의 수	없다	26	60.47
	있다	16	37.21
	1명	10	(62.5)
	2명	6	(37.5)
	무응답	1	2.33
부모님 재혼 후 새로 낳은 형제 수	없다	33	76.74
	있다(모두 1명)	8	18.60
	무응답	2	4.66
종교	없다	24	55.81
	있다	17	39.53
	기독교	9	(52.94)
	불교	5	(29.41)
	천주교	3	(17.64)
	무응답	2	11.76
동거 친부모의 종교	없다	14	32.56
	있다	27	62.79
	기독교	10	(37.04)
	불교	10	(31.04)
	천주교	6	(22.22)
	기타	1	(3.70)
재혼가족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 수준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6	13.96
	보통이다	27	62.80
	경제적으로 어렵다	9	20.93
	무응답	1	2.33
*동거하지 않는 친부모와의 접촉 연락관계	전혀 연락 없다	10	30.30
	연락없이 타인에게 소식만 듣는다	3	9.09
	가끔 연락한다	12	36.36
	자주 연락하고 만난다	6	18.18
	기타(연락오지만 피함) 및 무응답	2	6.06
*이혼하여 현재 따로 사는 부모의 결혼상태	재혼하셨다	11	33.33
	혼자사신다	11	33.33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	9	27.27
	기타(재혼 후 이혼) 및 무응답	2	6.06

<표 2> - 계속

*이혼한 친부모끼리의 접촉, 연락관계	전혀 연락안함	12	36.36
	가끔 연락함	6	18.18
	잘 모른다	14	42.42
	무응답	1	3.03
동거 친부모가 재혼하기 전에 함께 살았던 가족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	19	44.19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았다	19	44.19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5	(26.32)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7	(36.84)
	이모	2	(10.53)
	언니	1	(5.26)
	엄마집과 아빠집을 왕래	3	(15.79)
	혼자	1	(5.26)
무응답	5	11.63	
동거 친부모의 재혼 사실을 알게 된 계기	부모님이 직접 알려 주었다	25	58.14
	혼자서 눈치로 알게 되었다	13	30.23
	주변 친척이 알려주었다	3	6.98
	무응답	2	4.65
동거 새부모와 살기 전 관계	아는 사이로 자주 만났다	6	13.95
	만나지는 않았지만 아는 사이였다	9	20.93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23	53.49
	기타 및 무응답	5	11.63
현재 개인적으로 상담이나 정신과치료 경험 여부	받은 적 없다	38	88.37
	현재 받고 있다	2	4.65
	지금은 아니지만 받은 적 있다	2	4.65
	무응답	1	2.33
동거 친부모와 새부모 간의 부부 관계	좋으신 편이다	20	46.51
	보통이다	10	23.26
	가끔 다투시는 편이다	6	13.95
	자주 다투시는 편이다	4	9.30
	무응답	3	6.98
현재 가정의 화목도	화목한 편	6	13.96
	보통이다	20	46.51
	문제가 약간 있다	13	30.23
	심각한 문제가 많다	2	4.65
	무응답	2	4.65
합계	43(명)	100.00(%)	

(*부모님과 사별한 10명이 제외되어 총 응답자수는 33명임)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현재 가족관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조사대상인 재혼가족 청소년들은 현재 같이 사는 가족들이 잘 지내거나 다른 집들과 비슷하다고 보는 경우를 합쳐 53%가 넘고 있으며 가족생활만족도는 다소 불만이다가 42% 정도로 가장 많으나 37% 정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가족생활에 만족한다면 주로 누구의 노력 때문인가 즉 만족도에 기여한 가족원을 질문한 결과 가족모두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같이 살고 있는 부모 즉, 친부모와 새부모를 꼽았다. 가족간의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서는 청소년 자신으로 답한 경우가 약 33%가 가장 많았다. 함께 사는 친부모와의 관계는 만족한다가 약 42%로 가장 많았고 다소 불만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의 비율이 다음을 차지했다. 함께 사는 새부모

와의 관계도 친부모의 경우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님의 재혼에 대해서는 재혼한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63%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새부모에 대해서도 가족이자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약 40%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이긴 해도 부모는 아니라는 인식이 30%로 다음을 차지했다. 조사대상인 재혼가족 청소년들은 같이 사는 새부모가 간섭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재혼가정 사실에 대해서는 주변에 되도록 말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56%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재혼가족생활에서 가족임을 느끼게 해주는 활동의 유무에 관해서는 그런 활동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2%로 조사대상인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가족으로서의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가족활동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표 3> 재혼가족 청소년의 가족관계인식

		명(수)	%(소수 셋째반올림)
현재 동거 가족간의 관계	잘 지내는 편이다	6	13.95
	다른 집들과 비슷하다	17	39.53
	갈등이 좀 있다	12	27.91
	갈등과 문제가 많다	5	11.63
	무응답	3	6.98
현재 가족생활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0	0
	만족한다	16	37.20
	다소 불만이다	18	41.86
	불만이 많다	6	13.95
	무응답	3	6.98
*현재 가족생활 만족의 공헌인물	동거 부모 양쪽	8	24.24
	동거 친부모	6	18.18
	동거 새부모	2	6.06
	자신	5	15.15
	가족 모두	10	30.30
	기타	2	6.06
가족간 갈등 원인	동거 부모 양쪽	1	2.33
	친부모	3	6.98
	새부모	6	13.95
	자신	14	32.56
	가족모두	7	16.28
	기타	7	16.28
	무응답	5	11.63
동거 친부모와의 관계	매우 만족한다	2	4.65
	만족한다	18	41.86
	다소 불만이다	11	25.58
	불만이 많다	7	16.28
	무응답	5	11.63
동거 새부모와의 관계	매우 만족	2	4.65
	만족	18	41.86
	다소 불만	12	27.91
	불만이 많다	6	13.95
	무응답	5	11.63
부모 재혼에 대한 생각	재혼하신 것이 낫다	27	62.80
	재혼하지 않은 것이 낫다	11	25.59
	기타	3	6.97
	무응답	2	4.65
새부모에 대한 가족으로서 생각	가족이며 부모이다	17	39.53
	가족이나 부모는 아니다	13	30.23
	가족도 부모도 아니다	6	13.95
	모르겠다	4	9.30
	기타 및 무응답	3	6.98
새부모의 간섭	당연하다	21	43.84
	친부모는 되나 새부모는 안된다	9	20.93
	모르겠다	11	25.58
	무응답	2	4.65
재혼가정 사실	숨기지 않고 말한다	12	27.91
	되도록 말하지 않는다	24	55.81
	기타(친구만/물어보면 말한다)	5	11.63
	무응답	2	4.65
가족을 느끼게 해주는 활동	없다	31	72.09
	있다	8	18.60
	무응답	4	9.30

<표 3> - 계속

마음을 털어놓고 말하는 가족이나 친척	동거 친부모	3	6.98
	동거 새부모	2	4.65
	형제/자매	9	20.93
	친할머니, 고모, 고모부	3	6.98
	외할머니, 이모, 이모부	3	6.98
	기타(친구/선생님)	8	18.60
	없다	14	32.56
무응답	1	2.32	
현재 자신과 갈등이 많은 사람	동거 친부모	7	16.28
	동거 새부모	13	30.23
	형제/자매	3	6.98
	새형제/새자매	4	9.30
	없다	13	30.23
무응답	3	6.98	
가족의 화목의 책임	동거 부모 양쪽	12	27.91
	동거 친부모	3	6.98
	동거 새부모	5	11.63
	자신	17	39.53
	가족 모두	4	9.30
	무응답	2	4.65
현재 자신에게 가장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생활을 지도하는 사람	동거 부모 양쪽	14	32.56
	동거 친부모	12	27.91
	동거 새부모	4	9.30
	비동거 친부모	2	4.65
	기타	7	16.28
	무응답	4	9.30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청소년 자녀를 양육, 지도하는 일차적 책임	동거 부모 양쪽	23	53.49
	동거 친부모	10	23.26
	동거 새부모	0	0
	동거 친부모와 비동거 친부모	3	6.98
	기타	2	4.65
	무응답	5	11.63
현재 자신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관계	동거 부모 양쪽과 자신	6	13.95
	동거 친부모와 자신	7	16.28
	동거 새부모와 자신	13	30.23
	비동거 친부모와 자신	1	2.33
	없다	9	20.93
	기타	3	6.98
무응답	4	9.30	
*비동거 부모에 대한 생각	언제나 부모이고 가족이다	14	42.42
	부모이지만 가족은 아니다	5	15.15
	부모도 가족도 아니다	10	30.30
	무응답	4	12.12
청소년 자녀의 부모의 재혼은 나쁜 영향을 주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4	9.30
	별로 그렇지 않다	16	37.21
	그렇다	13	30.23
	정말 그렇다	7	16.28
	무응답	3	6.98
합계	43(명)	100.00(%)	

(*부모님과 사별한 10명이 제외되어 총 응답자수는 33명임)

가정문제에 의한 갈등에 대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약 33%로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재혼가정에서 청소년 자신과 갈등이 많은 사람으

로는 없다고 한 응답과 같이 사는 새부모라는 응답이 각각 30%로 같은 비율이었으며 가정의 화목을 위해 가장 책임이 큰 사람으로는 청소년자신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같이 사는 친부모와

새부모 두 분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조사대상자들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는 일차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함께 사는 친부모와 새부모 두 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함께 사는 친부모라고 답한 경우가 23%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가장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생활을 지도해 주는 사람에 대한 응답 또한 각각의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순위상 같은 경향을 보인다. 다만 자녀에 대한 일차적인 지도에 책임 있는 대상으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새부모의 경우 실제로 가장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는 인물로 9%로 나타난 것이 눈에 띈다. 조사대상인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는 같이 사는 새부모와의 관계가 약 30%로 가장 많았으며 없다는 응답이 21%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혼하여 같이 살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언제까지나 자신의 부모이고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이와 반대로 자신의 부모도 가족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30%였다. 부모님이 재혼하는 것이 청소년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합친 비율과 그렇다와 정말 그렇다를 합친 응답 비율이 각각 46.5%로 나타나 부모재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으로 나뉘었다.

전반적으로 요약해 볼 때, 조사대상인 재혼가족 청소년들은 가족생활 만족도의 면에서 불만경향이 다소 많긴 해도 만족의 비율도 높으며, 부모의 재혼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새부모에 대해서도 부모이자 가족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높았다는 점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이 사는 새부모를 받아들이면서도 가장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가정문제에 의한 갈등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가정화목에 대한 책임을 청소년 자신의 탓으로 가장 많이 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 등에서 재혼가정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가족상황에 대해 갖는 호의적인 인식과는 달리 내면적으로 혼자 감당하기 힘든 가족갈등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혼가족 상황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갖는 이러한 갈등을 포함한 정서들을 파악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질문한 결과는 다음의 <표 4>로 제시하였다.

재혼가족 청소년이 부모의 재혼과 재혼가족생활과 관련하여 느낀 정서의 내용을 <표 4>와 같이 살펴볼 때, 먼저 같이 사는 친부모님이 재혼해서 좋은 점을 정리하면 경제적 안정, 가정의 화목 그리고 재혼한 친부모의 행

복감 향상, 새부모의 보살핌, 가사부담의 감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같이 사는 부모님의 재혼으로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한 응답의 내용은 재혼가정생활과 새부모에 대한 적응상의 어려움과, 부모에 대한 미움과 외로움 같은 내면적인 정서적인 문제,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새부모의 차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 또한 따로 사는 친부모나 돌아가신 친부모에 대한 애정갈등, 새로운 친척으로 인한 어려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혼하여 지금은 같이 살지 않는 친부모에 대한 감정에 대하여 알아 본 결과, 그리움과 연민을 포함한 긍정적인 감정에서부터 싫다고 거부하거나 원망하는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중립적인 감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같이 사는 재혼하신 부모님에 대한 느낌은 재혼한 부모를 이해하고 믿는다는 수용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반응과 실망, 배신감과 같은 좌절을 보이는 정서적 반응으로 나뉘어진다. 함께 사는 친부모에 대한 불만으로는 친부모의 무관심이나 이해부족, 지나친 간섭과 부모의 재혼, 친부모의 우유부단한 모습이나 용돈을 적게 주는 것, 돌아가신 부모를 망각하는 것, 이해하기 힘든 것 등의 감정을 토로하였다.

반면에 함께 사는 새부모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새부모의 개인적 성향(이기적, 가식적, 감정을 숨기는 것 등)에 관련된 것을 비롯하여 감정회피, 무관심, 차별 그리고 돈애기의 어려움, 막연한 혐오감, 성적문제, 구속적인 태도를 언급하였다. 조사대상인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재혼으로 가장 영향 받은 일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는 높게 나왔다. 즉, 집안분위기가 좋아졌다거나 친부모가 부드러워졌다, 용돈이 많아졌다 등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성격변화와 스트레스 증가, 불안감과 불안정한 생활변화, 성적저하, 부모의 무관심 그리고 부정적 결혼관, 친부모와의 만남이 조심스러워진 것, 주위시선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의 비율은 부모의 재혼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일이 있다고 답한 31명의 응답에서 다시 구분된 것이므로 조사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부모의 재혼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부모님이 재혼하신 일이 재혼가족 청소년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었는지 문장완성형으로 질문한 결과 또한 부모 재혼으로 가장 영향받은 일의 응답경향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직후 가장 힘들었던 점에 대한 질문 결과 어려서 잘 돌랐거나 돌아가셨거나 같이 살지 않게 된 부모에 대한 그리움, 편부모가정으로서의 적응문제 내면적인 정서상의 문제, 주위시선 등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재혼직후에 가장 힘들었던 일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새부모와의 적응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특히 새부모의 호칭과 관련한 어려움을 많았다. 그 외에 같이 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나 실망, 배신감같은 내면적인 정서상의 어려움, 가족내의 갈등과 부모 재혼에 따른 생활분리, 친구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응답하였다. 재혼직후를 포함하여 부모의 재혼으로 힘들었던 점에 대한 응답경향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재혼가정생활과 새부모에 대한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토로하였고 외로움 같은 내면적인 정서 문제와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새부모의 차별, 경제적인 문제상의 어려움, 따로 사는 친부모나 돌아가신 부모와 관련된 감정 처리 문제, 새친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에게 자신과 같은 처지의 재혼 가족 청소년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으로 자기 일에 충실하는 것, 자신감, 인내, 자기믿음, 부모님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부모 일에 신경쓰지 않는 것, 친구를 갖는 것, 반항하지 않는 것 등을 들었다.

<표 4> 재혼가정 청소년의 부모의 재혼 및 재혼가족생활과 관련된 정서

질문	응답내용
같이 사는 친부모가 재혼해서 좋은 점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좋아지셨다/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줘서 좀 편한 것 같다/ 엄마가 전보다 더 행복하신 것 같다/화목해졌고 좋다/아빠가 잘 웃으신다/엄마가 자주 웃으시고 경제적으로 좋아졌다/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그래도 예전 엄마아빠와 살 때보다는 화목한 편이다/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동생이 엄마가 생겨서 많이 안정되었다/싸움이 적어졌다/아빠가 때리는 일이 줄었다/일단 엄마가 생겨서 좋다, 아빠가 못하시는 걸 잘 챙겨주신다/집안일 부담이 줄었고 아빠가 술을 적게 드신다/엄마와 언니, 나 이렇게 세 명뿐인 여자들로 가정을 꾸미고 살 때보다 아버지라는 버팀목이 큰 힘이 될 때가 있다/경제적으로 양호하고 더 잘 챙겨주신다/엄마아빠가 싸우는 일이 없다/용돈을 많이 준다/엄마가 일을 안해도 된다. 당당하게 친구들한테 아빠애길 한다/가정 형편이 더 좋아졌다/아빠가 술을 덜 마신다/식사, 빨래, 동생보는 일이 줄었다/동생이 생겨서 좋다
같이 사는 부모님의 재혼으로 가장 힘들었던 점	자식 차별할 때, 성격이 맞지 않을 때/엄마아빠가 동시에 나한테 화낼 때 기분나쁘다/친구한테 말해야 하는 경우/내가 외톨이라는 허무감을 느꼈다/눈치를 보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다/아빠가 오히려 새아빠같다, 새엄마하고 있을 때 오히려 잘 해주는 척할 때가 있다/크게 힘든 점은 없지만 항상 말조심과 눈치가 보였다/엄마라고는 하지만 어색하다/새엄마랑 성격이 맞질 않는다/우리와 새아빠와의 불화/새엄마와 적응하는 것/새아빠인 아저씨가 돈을 잘 벌여오지 않는 것/엄마한테 엄마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새아빠쪽 부모님이 눈치를 주는 것/일단 모든 것이 다 싫고 아버지나 새엄마나 다 미울 뿐이다/재혼하셔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엄마라고 부르기가 어색함/새엄마라는 여자가 이기적이다/왜 재혼하셨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남들의 시선/적응하기 힘들었다/엄마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싫다/아빠가 새엄마만 좋아하시는 것 같다/따로 사는 친엄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식성이 안맞아서 다투곤 한다 그냥 하는 말도 비꼬는 것 같이 기분이 나쁠 때가 많다/친구들한테 창피하다/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자기 애랑 차별한다
이혼후 지금은 같이 살지 않는 친부모에 대한 감정	별로 생각나질 않는다. 느낌이 없다/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전혀 마음같은 건 갖고 있지 않다. 왜냐면 아빠도 이혼하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었을 것이다/아무 느낌 없다. 지금 생활이 바빠서 생각할 수가 없다/나중엔 엄마한테 갈 것이다/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만나고 싶지도 않다/글쎄 맨 처음엔 보고 싶어했고 매우 좋아했다. 근데 많이 만나다보니 매우 미워졌다/싫다 그치만 약간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도와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싫다/아무런 느낌도 없다. 보고 싶지도 그렇지도 않다. 내가 어릴 땐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악'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진 생활 때문인지 괜찮다/원망을 많이 했다/조금 말하기가 그렇다/두 분 다 불쌍하다고 생각한다/그렇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부모님이 많다/원망스럽다/불쌍하다/그 분도 재혼하셨으면 한다/보고 싶다/사랑한다/그냥 부모님처럼 느낀다
같이 사는 재혼하신 부모님에 대한 느낌	좋지 않다/재혼하신 것을 이해한다 나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하신 것 같으니까/ 기분나쁘다/그냥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간다/재혼도 나쁘지 않다/엄마아빠가 정말로 사랑했을까/좋다. 하지만 돌아가신 엄마가 잊혀지는 것이 너무 싫다/우리 때문에 재혼하신 것 같다. 고마워하고 있다/사실 일년 전만 해도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를 낳아주시는 엄마의 인생이기도 하기에 엄마가 하시는 일을 믿는다. 처음 새아빠와 재혼 때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는 엄마를 웃으면서 '좋아, 좋아' 하며 찬성하였다. 친아버지의 죽음과 엄마의 재혼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것들은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그냥 별로 좋지 않다/조금 실망스럽다/괜찮다/친아빠가 아쉽다/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배신감 느끼고 내가 그 자식이라는 것이 화가 날 때가 있다
함께 사는 친부모에 대한 불만	내 생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새부모님의 생각만 따른다/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구속적인 것 같다/새엄마랑 재혼한 것/지금 사는 것도 좋지만 이혼하지 않았더라면/무관심/차별/불만은 한 가지밖에 없다. 가끔 날 곤란에 빠뜨리는 것/새엄마가 있을 때만 잘해주는 척 하는 것/눈치보면서 하는 것/잔소리좀 그만하세요/언니에게 너무 약하다, 잘못을 해도 혼내질 못하신다/날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속상한 일이 있어도 걱정할까봐 말씀드릴 수 없다/따로 사는 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용돈을 적게 준다/이해하기 힘들다/더럽다/너무 부담스럽게 대해 주신다/돌아가신 엄마도 생각했으면 옛날을 모두 잊어버린 것 같다/나보다 새아빠를 더 우선시할 때/우유부단한 행동/용돈이 부족하다/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표 4> - 계속

<p>새부모에 대한 불만</p>	<p>새엄마 쪽 자기 아이들과 차별이 심하다/새부모의 이기주의/가식적인 행동/성적에 관한 것, 개방적이지 못한 것/그냥 새부모님이 짜증난다/돈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다/너무 감정을 숨긴다, 공하다/자유구속, 조금 고지식하다/개방적인 대화와 자기중심적인 아빠의 태도/가문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새부모란 자체가 싫다/의견차이/용돈을 주지 않는 일이다/가정에 무관심/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나에게 불만을 말 안하고 엄마에게만 말할 때/차별대우</p>
<p>부모님의 재혼으로 가장 영향 받은 일</p>	<p>사사건건 간섭이 심하다/스트레스와 성격변화/잘 모르겠다/부모님들과의 애정, 화목, 나의 정신적 불안/집 분위기가 나빠졌고 아빠가 좀 부드러워지신 점/불안정한 생활/갑자기 엄마와 동생이 생겼다, 이모와 함께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나의 생활/친구부모님들이 우리 집을 보는 시선/행복하다/잘 모르겠다/스트레스와 성격변화/아직까진 없다/정신병을 얻은 것/약간 내성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성적/집에 있기가 불편/집안일을 안해도 된다/부정적인 결혼관/소외감/용돈을 많이 받는다/집안일을 안 해도 된다</p>
<p>부모님이 재혼하신일이 나에게</p>	<p>별로 만족치 못한다/괜찮은 일이다/스트레스와 성격변화/잘된 일이다/큰 충격이다/좋다/잘된 일인지도 모른다/큰 충격/상관없다/치명적인 일이다/나쁜 일이다/그냥 부모님의 일이다/오정일 수도 있다/좋은 일이다/자유를 얻아가는 일이기도 했다/좋은 일이다/자유를 얻아가는 일이기도 했다/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시기였으면 했습니다. 그치만 이젠 그저 바라만 보고 싶습니다. 점점 더 지쳐가기만 한다/별로 큰 감정이 나지 않는다/행운이다/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그냥 그렇다/ 슬프다/아무런 생각이 없다/재수없는 일이다/관심없다/놀란다/난감한 일이다/그저 그렇다/편안하다/배신이었다/잘못하신 일이다/공포와 연민이었다/난감한 일이다</p>
<p>부모이혼/ 사별직후 가장 힘들었던 점</p>	<p>어렸을 때라 잘 모름/나이가 어려서 아무 것도 몰랐다/아빠의 빈 자리가 좀 허전했던 것 같다/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으나 시간이 지남으로 이해하게 되었다/엄마가 울었을 때/친구들과의 문제/경제적인 문제/엄마가 보고 싶었다/새엄마와의 만남, 친부모님이 보고 싶었다/ 집안 일을 내가 해야 하는 것, 모르는 것이 많은 점/양쪽 친부모들의 서로 다른 의견/어린 나이에 남들은 엄마가 있는데 나는 없어서/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언니가 너무 풀이 죽어있었던 것/모든 게 싫었고 두 분에게 실망했다/부모님 중 한 분이 안 계시다는 것/모든 게 힘들었다/적응하기 힘들었고 짜증이 났다/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들었다/함께 사는 부모님이 힘들어 하신 것/남들의 시선/외로움/어색한 관계와 분위기/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은 후 세내야 했던 일/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던 일</p>
<p>부모님 재혼직후 가장 힘들었던 일</p>	<p>새부모님께 뭐라고 불러야 할 지 제일 힘들었다/따로 살아서 힘들었다/새부모와 성격갈등, 자식차별/조금 낯설었다/친구들과의 관계/새엄마와의 갈등/적응하기 힘들었고 눈치가 보였다/새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왔다갔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생활(안정되지 못한 생활)/엄마를 뭐라고 불러야 할 지 몰라서/새엄마랑 언니랑 자주 싸웠다. 그게 너무 무서웠다/새아빠에 대한 거부감과 낯설음/얘기를 하지 못했다/처음에 아빠라고 부르는 게 가장 힘들었고 잘 이해해 주시지 않은 점/서로 어색한 점/집에 있기가 불편함/왕들의 시선/별종한 관계, 어려운 분위기/주위 사람들의 편견/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들었다/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간다/ 엄마생각</p>
<p>자신과 같은 처지의 재혼가정 청소년 친구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p>	<p>무조건 신경쓰지 말고 자기 할 일에 충실만 하면 문제는 없다/그냥 부모님과 잘해보라고 한다/기속지 말고 그 새가정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나 아님 되고 있나를 깨닫고 느꼈음 좋겠다/그런 친구가 나에게 있다. 하지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 힘내라는 말을 해주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시켜주고 싶다/그냥 운명이 라고 받아들이고 살아라/ 보통 가정과 다를 바 없다. 익숙해져라/아무런 말도 해주고 싶지 않다. 다만 부모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라고 말할 뿐/기속지 말라고/너만을 믿고 사는 거야라고 때론 친구가 필요하다고/만약 부모님의 이혼 재혼으로 인한 가정 때문에 자신이 나쁜 길을 걷는다면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다. 비행의 이유가 '결손가정에서 자라서' 라고 말하는 건 책임회피이다. 얼마든지 새가족과 어울려 잘할 수 있고 잘 화합이 안된다 하더라도 나는 나일뿐 부모의 재혼으로 내 길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자신의 인생이 있듯이 부모님도 한 인간이므로 자신의 인생이 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불만을 부모님께 보여서 부담을 주는 것은 이기심이다/그래도 부모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좋고 더 안정적이다/새부모도 부모다/어떤 상황이든지 부모님들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고 너희 부모님의 선택을 믿고 따라야 한다. 너희 부모님들의 인생이니깐/신경쓰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너는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해 주고 싶다/고민할 것 없다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모든 일에 성실하면 하고 나쁜 맘을 먹지 말라고 혼자 속상해 하지 말고 친구한테 말하라고/참고 잘 얘기하고 풀어서 지내라고/할 말이 없다/그냥 친구처럼 아는 사람처럼 어색하게 굴지 말고 잘 살라고/되도록 고민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독립해/마음을 비우고 살라고/참고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라/뭐든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별로 할 말이 없다/반항하지마/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p>

<표 5> 재혼가정 청소년의 적응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내용

	명(수)	%(소수 셋째반올림)
현재 가족생활에서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	침부모의 사랑	3 6.98
	새부모와 관계가 좋아지는 것	6 13.96
	가족간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대화	8 18.60
	부모님의 나에 대한 이해	15 34.88
	새형제와 사이가 좋아지는 것	1 2.33
	기타	9 20.93
	무응답	1 2.33
재혼가정에 살면서 가장 큰 어려움	친부모와의 갈등	1 2.33
	새부모와의 갈등	14 32.56
	따로 사는 부모와의 관계	5 11.63
	부모님과의 불화	2 4.65
	부모님과 나의 생각차이	8 18.60
	성적을 비롯한 학교문제	6 13.95
	기타	4 9.30
없다	3 6.98	
*가족생활교육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주제 (1개~3개 선택 가능)	스트레스 관리방법	23 22.77
	부모님과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	19 18.81
	새부모와의 원만한 대화	18 17.82
	가족갈등해결방법	16 15.84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	15 14.85
	재혼가족과 청소년	8 7.92
	기타(진로/독립에 필요한 비용)	21 1.98
	합계	101 100
가정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때 대처하는 방법 유무	아무런 대처방법이 없다	36 83.72
	나만의 방법이 있다	3 6.98
	기타	3 6.98
	무응답	1 2.33
*가족생활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원 (1개~3개 선택 가능)	친한 친구	22 28.21
	이용하는 경우가 없다	18 23.08
	TV나 신문	14 17.95
	인터넷	11 14.10
	부모님	6 7.70
	일반도서관 잡지	3 3.85
	교사	3 3.85
	없다	1 1.28
합계	78 100	
*가장 도움이 된 정보원 (1개~3개 선택 가능)	친한 친구	16 34.79
	이용하는 경우가 없다	13 28.26
	TV나 신문	7 15.22
	인터넷	4 8.70
	부모님	2 4.35
	일반도서관 잡지	2 4.35
	교사	1 2.17
	없다	1 2.17
합계	46 100	
학교생활경험이 가족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큰 도움이 되었다	1 2.33
	약간 도움이 되었다	11 25.58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22 51.16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9 20.93
재혼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필요하다	25 58.14
	필요치 않다	16 37.21
	기타(관심없다)	1 2.33
	무응답	1 2.33

<표 5> - 계속

재혼가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	새부모와 갈등해결방법	13	30.23
	재혼가족의 이해	9	20.93
	재혼가족에서의 정서적 문제	9	20.93
	재혼가정 청소년의 정신건강	5	11.63
	부모와 의사소통	3	6.98
	기타(공부하는 법/혼자사는 법)	3	6.98
재혼가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의사	무응답	1	2.33
	없다	23	53.49
	있다	13	30.23
	기타(경우에 따라, 모르겠다)	4	9.30
*프로그램 참여 시간	무응답	3	6.98
	방학 중	14	66.67
	학기 중	3	14.29
	기타(아무때/일요일/하고싶을 때)	4	19.05
합계		21	100
*프로그램 참여 인원수	5명 이하	8	32.00
	5~10명	10	40.00
	10~15명	4	16.00
	15명 이상	3	12.00
	합계	25	100
*프로그램 장소	어느 곳이나 상관없다	14	43.75
	학교아닌 외부기관	13	40.63
	다른 학교	2	6.25
	현재 다니는 학교	1	3.13
	기타	2	6.25
합계		32	100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 학생과의 관계	다른 학교	23	67.65
	같은 학교	11	32.35
	합계	34	100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년	같은 학년	17	48.58
	상관없다	14	40.00
	다른 학년	4	11.43
	합계	35	100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 학생들의 성별	혼성	22	62.86
	같은 동성	8	22.86
	혼성	5	14.29
	합계	35	100
합계		43(명)	100.00(%)

(*선택 문항임으로 합계가 다름)

<표 6> 재혼가정 청소년의 적응교육프로그램 요구도 관련 개방형 질문과 응답

질문	응답내용
재혼가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도움받고 싶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부모관계 : 새엄마와의 원만한 대화/새아빠와의 갈등/새부모와의 원만한 관계/새부모님과과의 편안한 관계/새엄마와의 갈등/새부모님과의 갈등/새엄마에 대한 이해/새로 오신 부모님과 어색하지 않고 잘지내는 방법/새로 들어온 부모님과 갈등이 생길 때 해결방안/새부모님과 빨리 친해지는 방법 - 의사소통 : 새엄마와 원만하게 대화하는 방법/내 생각 전달하는 방법 - 새형제관계 : 새형제와의 갈등해소법 - 재혼부모의 부부갈등 : 재혼하신 아버지와 새엄마가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정신적인 안정 -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법 - 친엄마와 함께 사는 법 - 돈 - 기타 : 재혼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대체로 속앓이를 많이 한다. 겉으로는 태연히 웃고 떠들어도 속에선 우울하다던가, 초조, 심리적 불안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 이러한 증세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말들이 가장 필요한 것 같다

<표 6> - 계속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	자신감을 갖고 끊임없는 의지/부모님의 사랑/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정신적 안정과 애정/친엄마랑 만나게 해주는 것/그런 청소년들의 모임/특별히 신경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가족간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 친한 친구와의 대화/남은 친부모의 관심과 사랑/정신적인 안정과 이해하는 능력과 매사의 일을 긍정적으로 수긍하는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것/ 부모님과의 대화/아이에 대한 생각/나에 대한 이해/부모님에 대한 이해(왜 이혼하셨는지/잘 살고 빼뺏어 지지 않게 나가라고/정서적 안정/자신감/자식에 대한 배려/사랑/이혼을 이해시키는 것/자연스런 대화/자식에 대한 이해/친구관계
부모님과 사별한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	친부모를 잊고 새부모와 열심히 사는 것/부모님의 관심/관심갖고 이해하는 것/ 상담/불안정한 마음을 잘 치료하는 것/자유로운 생활/갈등해소방법에 대한 교육/ 자신감/주변사람들의 격려/돌아가신 분을 억지로 잊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하는 것/곳곳이 살아라/나에 대한 관심/정서적 안정/죽음에 대한 이해
부모님이 재혼한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	자유로운 대화방식/부모님과의 대화/친부모의 관심/관심, 사랑, 이해/상담(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것 말하기 위해)/친구/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새부모님과 나의 이해/이해할 수 있는 능력/새부모님의 큰 사랑과 관심/재혼한 부모님과 잘 지내는 것/새부모와의 불화해소/돌아가신 분에 대한 감정과 지금 부모님의 감정문제/심리적 안정을 주는 것/자식에 대한 배려/가족간의 대화/이해심

재혼가족에서 청소년이 재혼한 부모님에게 필요로 하는 도움 중 특히 대화의 방식이나 대화가 언급된 점은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 이해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충분한 대화시간과 자유로운 대화방법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반 중·고등학생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한국청소년상담원, 2003), 전체 청소년 응답자의 60%가 최근 일주일 동안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1시간 미만이었으며 그 얼마 되지 않는 부모와의 대화중에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면 재혼가정에서의 청소년과 부모와의 대화도 시간상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청소년 입장에서 재혼부모와의 대화가 필요한 도움으로 인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이상과 같이 나타난 연구결과 중 몇 가지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인 재혼가정 청소년들이 부모의 재혼과 재혼가족생활과 대하여 갖는 정서적, 감정은 분노와 슬픔, 배신감, 무력감, 실망, 갈등에서 이해와 수용, 만족에 이르기 까지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Visher 부부(1996, 반전호 외 역 2003)가 언급했듯이 재혼가족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감정을 확인하며 상실을 슬퍼하도록 해주며 자녀들의 무력감을 덜 느끼도록 도와주고, 분노를 수용하고 분노의 근원을 분명하게 밝혀 주며 자녀들이 감정을 행동화하기보다 말로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인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부모의 재혼 직후와 재혼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점과 재혼가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새부모와의 갈등이었다는 결과는 먼저 청소년기 자녀는 초혼의 양친가족에서도 부모와 정서적 거리감을 두면서 심리적 독립을 추구한다는 청소년의 발달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재혼가족 청소년은 이에 더하여 혈육이 아닌 새부모의 존재와 양육을 수용해야 하는 데 대한 저항감이 있으며 동시에 새부모에게 맞추기 위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현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재혼가정 특유의 역동에서 연유하는 복잡미묘한 인간관계인 새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미성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역부족과 한계를 느낄 수 있다.

초혼가족에 비해 재혼가족의 자녀들이 우울증과 같은 내면화된 정서적 문제를 가질 위험이 많아진다거나(Zill et al., 1993), 약물이나 음주, 혼전성교 같은 외현적인 문제 행동이 더 많다는 결과(Hoffman & Johnson, 1998; Day, 1992) 들을 고려할 때 재혼가족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서 느끼는 갈등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조사된 재혼가족 청소년들은 같이 사는 친부모나 새부모들이 자신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이것은 초혼가족의 청소년들도 흔히 부모에 대해 갖기 쉬운 불만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통제는 많고 지지적인 행동은 적은 유리된 (disengaged) 양육스타일은 재혼가족내 청소년자녀의 적응이 가장 낮은 것과 관련이 있으며(Crosbie-Burnett & Giles-Sims, 1994), 재혼가족에서 친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적응(가령, 건강문제가 없으며 약물사용을 적게 하며 자존감이 높은 것 등)과 관련이 있었으며 권위주의적인 부모행동은 재혼가족

청소년의 적응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Fine & Kurdek, 1992)로 미루어 볼 때, 친부모와 새부모가 보다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청소년 자녀의 입장에서 재혼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친부모들이 재혼하게 되면 새배우자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더 쏟으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새부모에게 많은 부분 위임하게 되면서 친부모로서의 역할수행과 관심이 적어질 수 있다. 이는 재혼과 함께 부모로서의 유능감이 줄어들 수 있다(Hoffman & Johnson, 1998)고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한 지 5년 후 좋은 적응상태를 보인 아이들의 경우 재혼여부에 관계없이 함께 사는 친부모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Wallerstein, 1980). 재혼가족의 청소년자녀는 그래도 친부모가 새부모보다 더 자신들은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믿으려는 경향이 있음(Russell & Searcy, 1997)을 감안할 때, 함께 사는 친부모는 재혼이후라도 청소년자녀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이며 일차적인 심리적 지지자로 역할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친부모가 재혼 후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불가피하게 줄어들더라도 친부모가 자녀가 일 대 일로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여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준다고 해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줄어들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녀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부모의 재혼으로 좋아진 점에 대하여 경제적 안정, 가정의 화목, 재혼한 친부모의 행복감 향상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는 결과는 실제로 부모의 재혼이 청소년 자녀에게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조사에서 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이해가 가장 많았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재혼가족에서 부모의 이해와 관심, 개방된 대화같은 부모자녀간의 만족스러운 심리적인 교류를 경험할 때 청소년자녀의 입장에서 직접적이고 내면적으로 재혼가족생활이 주는 이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부모의 재혼에 대한 감정이나 재혼으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조사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나 불안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토로하였으며 요구도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가족관계상의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이 대부분 없으며 가족생활과 관련된 정보와 도움은 친한 친구를 통하여 주로 얻고 있었다. 이는 재혼가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이 갖기 쉬운 부모재혼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를 건설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친구이외에 재혼가족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나 대상 그리고 정보제공의 방법이 개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 번째로, 재혼가족이 겪는 심리적 문제의 하나가

충성심 갈등(loyalty conflict)으로 이러한 갈등이 친부모와 새부모 사이보다는 오히려 같이 살고 있는 친부모와 따로 사는 친부모 사이에서 더 많이 경험되며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Ganong & Coleman, 1994)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달리 본 연구의 청소년들처럼 과반수가 현재 재혼가족이 화목하거나 보통수준이라고 느끼며 새부모를 적어도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경우(43명 중 30명), 그리고 가장 스트레스 받는 관계가 따로 사는 친부모(1명)보다는 같이 사는 새부모(13명)인 경우 재혼가족이 안정화된 시점에서 청소년 자녀들은 같이 사는 재혼한 친부모와 따로 사는 친부모 사이보다는 같이 살고 있는 친부모와 새부모사이에서 충성심 갈등을 느끼기 쉽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족갈등의 원인을 청소년 자신 때문으로 가장 많이 귀인(14명)시키며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청소년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17명) 예상보다 재혼가족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갈등을 지나치게 자기책임과 자기비난으로 돌림으로써 가족과 거리를 두거나 지나친 자책감으로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교육프로그램에서 재혼가족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자신을 문제시하는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 번째로, 조사된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재혼가족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으면서도 참여의사는 없다는 응답이 많이 나온 것은 청소년의 경우 학교생활과 사교육 시간으로 인해 시간상 압박감을 받으며 학교교육과 같은 성격의 교육으로 인식하여 거부감을 나타낸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중·고등학교의 가정 교과에서 재혼가족생활 적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교와 연계된 지역의 복지기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집단상담 형식으로 재혼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먼저, 재혼가족 청소년들의 가족생활적응을 돕는 다양한 정보제공을 비롯하여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 때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재혼가족에 대한 이해, 부모의 재혼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의 완화, 새부모와의 갈등해결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형식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학년 또래의 10명 이내의 혼성집단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학교 이외의 외부기관에서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혼가족의 친부모와 새부모는 청소년자녀의 발달적 특성과 가족변화로 인해 겪은 고충들을 이해하며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갖고서 민주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녀들이 부모재혼으로 인한 정서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재혼가족을 자신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안전기지로 인식하며 부모재혼으로 인한 혜택을 내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혼가족의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들을 자칫 가족의 문젯거리로 간주하여 일찍부터 가정에서 내모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학문적인 측면에서 아동학, 가족학, 인간발달학, 그리고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이혼후 재혼이나 사별 후 재혼가족, 재혼가족에서 성장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연구결과들이 유용한 사회적인 정보와 지식의 형태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학교 상담이나 지역의 청소년 수련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타 종교단체에서 재혼가족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점차 재혼가족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청소년자녀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공유하며 심리적으로 지지받고, 현실적으로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생활하는 재혼가족의 어려움과 문제점만을 부각하기 보다는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만족감이 높은 재혼가족의 성공사례나 재혼가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과 부모들이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나 지침에 대한 정보제공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존의 복지관 서비스를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혼과 재혼이 성인인 부모들만의 문제로 간주하여 손쉽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생각할 때 부모들이 재혼을 할 때는 재혼이 특히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는 득과 실, 그리고 재혼가족의 안정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숙고하여 재혼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부모들은 무엇보다 어떠한 결정과 행동이 청소년 자녀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부모자신들의 재혼이 청소년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긍정적인 모델링과 심리적 지지의 대상이 많아지는 것과 같이 청소년 자녀의 성장의 폭과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것은 부모 개개인의 행복과 만족도 중요하지만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어도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청소년이 재혼가족에서 적응을 잘 하는 것이 재혼가족의

안정에 기여하며 재혼가족의 불안정이나 해체, 재혼가족 청소년의 문제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재혼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재혼가족의 안정화와 행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연구를 위해 조사된 인원수가 43명이라는 소수의 재혼가정 청소년들을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전반적인 특성에서 조사대상자인 재혼가족 청소년들은 담임선생님의 요구에 응할 정도로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도 하고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함께 사는 친부모와 새부모의 관계도 보통이거나 좋은 편에 속하는 비교적 어느 정도 재혼가정생활이 안정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재혼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정서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의 내용은 조사대상자들의 배경과 다른 가령, 가족갈등이 극심하거나 학교적응문제가 있는 경우의 청소년이나 재혼가족 생활이 2년 그 이상인 청소년들의 경우에 그 양상이 다를 수 있다. 또한 학교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서 재혼가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심층으로 면접조사한다면 보다 사실적이고도 솔직한 응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주제어 : 재혼가족 청소년, 재혼가족관계, 인식, 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참 고 문 헌

- 김득성(2002). 이혼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단기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8.
- 김민경·최은영(2003). 집단미술활동이 이혼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7(2), 59-74.
- 문현숙·김득성(2003). 이혼적응 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효과검증- 집단마라톤식 과정으로-대한가정학회지, 41(11), 201-214.
- 박은주(2004) 재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정현(2002)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족복지학, 9, 8-31.
- 송영혜·김경원(2002) '만화치료'가 이혼가정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적 기능변화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6(2), 43-57.
- 임춘희(1997) 재혼가족내 계모의 적응과 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춘희(2006) 재혼가족 청소년의 친부모관계와 새부모관계에 대한 연구-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재혼가족신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3(3),79-102.
- 정문자·김은영(2005) 이혼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성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3), 161-183.
- 정현숙·유계숙·임춘희·천혜정·전춘애(1999) 준비된 재혼, 또 다른 행복. 서울: 동인출판사.
- 주소희(2002) 이혼가정자녀의 부모 이혼 후 심리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 77-106.
- 통계청(2005) 인구동태통계연보.
- 통계청(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www.nso.go.kr).
- 한국청소년상담원(2003) 우리 청소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청소년의 삶과 고민: 10년의 변화. 한국청소년상담원.
- 홍종관(2003) 이혼가정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개발. *초등교육논총*, 19(2), 345-365.
- Anderson, ER., Greene, SM., Hetherington, EM., Clingempeel, WG (1999) The dynamics of parental remarriage: Adolescent, parent, and sibling influences. In E.M. Hetherington(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A risk and resilience perspective* (295-322).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Bray, JH(1999) From marriage to remarriage and beyond: Findings from the developmental issues instepfamily research project. In E.M.Hetherington(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A risk and resilience perspective*. 253-272.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larke, SC & Wilson, BF (1994) The relative stability of remarriages: A cohort approach using vital statistics. *Family Relations*, 43, 305-310.
- Coleman, M, Ganong, L & Fine, M (2000) Reinvestigating Remarriage: Another Decade of Prog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88-1307.
- Crosbie-Burnett, M & Giles-Sims, J (1994) Adolescent adjustment and stepparenting styles. *Family Relations*, 43, 394-399.
- Day, RD (1992) The transition to first intercourse among racially and culturally diverse you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749-762.
- Fine, M & Kurdek, L (1992) The adjustment of adolescents in stepfather and stepmother families.*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725-736.
- Ganong, L & Coleman, M (1994) Adolescent stepchild-stepparent relations: Changes over time. In K.Pasley & M.Ihinger-Tallman(Eds.), *Stepparenting: Issues and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87-104. Connecticut: Greenwood Press.
- Hoffman, JP. & Johnson RA (1998) A national portrait of family structure and adolescent drug us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633-645.
- Juroe, D & Juroe, BB (1983) *Successful stepparenting*. Fleming H.Revell Company.
- Lutz, P (1983) The stepfamily:An adolescent perspective. *Family Relations*, 32, 367-376.
- Papernow, P (1993) *Becoming a stepfamily: Patterns of development in remarried families*. New York: Gardner.
- Quick, DS., McKenry, PC & Newman, BM (1994) Stepmothers and their adolescentchildren: adjustment to new family roles. In K.Pasley & M.Ihinger-Tallman(Eds.), *Stepparenting: Issues and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105-126). Connecticut: Greenwood Press.
- Russell, A & Searcy, E (1997) The contribution of affective reactions and relations and relationships qualities to adolescents' reported responses to parents. *Journal of Social & Personal relationships*, 14, 539-548.
- Sager, CJ, Brown, HS, Engel, T, Rodstein, E & Walker, E (1983) *Treating the remarried family*. New York: Brunner/Mazel.
- Schwebel, AI & Fine, MA (1994) *Understanding and helping families-A Cognitive-behavioral approac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Visher, EB & Visher, JS (1988) *Old Loyalties, New Ties*. Bruner/Mazel.
- Visher, EB & Visher, JS (1996) *Therapy with Stepfamilies*. 재혼가족치료. 반건호, 조아광 역, 서울: 도서출판 빈센트
- Visher, EB & Visher, JS (1996) *Therapy with stepfamilies*. New York:Brunner/Mazel.
- Wald, E (1981) *The remarried family: Challenge and promise*. New York: Basic Books.
- Wallerstein, JS & Kelly, JB (1980) *Surviving the breakup: How children actually cope with divorce*. New York: Basic Books.
- Zill, N., Morrison, DR & Ciore, MJ (1993) Long-term effects of parental divorce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djustment, and achievement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91-103.

(2006. 08. 09 접수; 2006. 09. 18 채택)